



현대불교



항일불교인사 업적 조명 '한밤중'

독립유공자 279명 중 불교인사 36명, 전문연구단 발족 절실 일화·하규 스님 등 공적 뚜렷... 자료·유적없어 '등록' 못해

3·1절 87주년을 맞은 현재까지 불교계 인사의 항일활동에 대한 고증 작업이 구체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독립유공자 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은 불교계 항일운동 인사가 어느정도 되는지 가늠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931년 만해 스님에 의해 결성된 항일비밀결사단체인 '만당(만당)'의 핵심당원으로 경상도 일대에서 군자금 모금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 1938년 진주형무소에 8개월 간 옥고를 치렀던 일화 스님(1897~1956). 그러나 한국전쟁으로 인해 발췌인 명부가 소실되는 바람에 일화 스님은 독립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하고 있다.

일화 스님의 유족 정보(58·경기도 부천시)는 "유족들이 보호 혜택을 받고 받지 않고를 떠나 중

단과 불교계 학자들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죽어간 이들의 행적을 발굴해 명예를 찾아주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독립운동가로서 많은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유족이 없어 제대로 조명되지 않고 있는 조하규 스님 역시 마찬가지다.

만해기념관 전보삼 관장은 "문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업적을 명확히 고증하고 독립유공자로 추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독립유공자에 대한 법률 규정에 의하면, 독립유공자(순국선열, 애국지사)로 등록될 수 있는 자격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

훈장,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로 명시돼 있다.

또 독립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제반의 서류를 갖춰 국가보훈처에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을 해야 하며,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 독립유공자로 등록을 할 것인지를 판단하게 된다. 종단과 학계의 철저한 자료조사와 연구 작업이 선행돼 역사적 고증자료를 확보해야 가능하다.

부천대 김광식 교수를 비롯한 관련 학자들은 "광복이 된지 반세기 가 지나도록 불교계 독립열사들의 활동과 업적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종단과 학자들의 책임이 크다"며 "그동안 역사의 그늘에 묻혔던 불교계 독립열사들의 업적을 오늘에 되살리고 동시에 불교계 발전을 위해서

도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사실 유족들이 역사적 고증과 자료 수집 등을 하며 행적을 밝혀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종단과 불교계 학자들이 본격적으로 자료를 발굴하고 수집해 철저한 역사적 고증과 검증 작업을 벌여야 하지만 이 역시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제치하 당시 스님들의 기록을 추적해 온 혜봉 스님(이전 지족암 주지)은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279명의 독립유공자 중 불교계 인사는 3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불교계 인사의 항일활동 규명 작업이 전무한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을 지낸 태허 스님(운암 김성숙, 1898~1969)의 업

적을 기리고 불교계 독립열사들의 활동과 업적 연구를 위해 지난 1월 23일 '운암 김성숙 기념사업회(회장 이수성)가 창립됐다. 그러나 열악한 재정과 전문인력 등의 부족으로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운암 김성숙 기념사업회 민상진 사무국장은 "종단과 불교학계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 일에 동참한다면 많은 무명의 불교계 항일 독립열사를 세상에 알릴 수 있음은 물론 불교계의 위상도 함께 높아질 것이며 보다 많은 유족들도 보호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명 독립열사들의 조명은 전일논란을 규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교역사바로세우기의 중요 과제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범불교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종단 차원에서 전문 연구단이 구성되어 정부에서 주축·탐문, 각 사찰의 미공개 자료 수집 등 관련 연구 활동을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노병길 기자 sasaman@buddhapia.com

"어린이 마음 부처님 마음"

봉축위 봉축표어 발표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는 불기 2550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표어로 '어린이 마음 부처님 마음'을 선정했다. 봉축표어 공모에는 670점(327명 응모)이 참가했으며, 당선작은 중국에 소재한 한국사찰 '장안사' 신도 임병학(54)씨가 응모한 것.

봉축위는 "맑고 깨끗한 어린이 마음이 곧 부처님 마음이다. 어린이 마음처럼 맑고 깨끗한 세상을 발원하는 의미가 담겨있어 선정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조용수 기자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24~25면
법주사 회주 혜정 스님



산문밖의 禪 17면
죽림장 박성춘씨

- 아름다운 베이커리 6면
- 종매카페 '따뜻한 만남' 9면
- 두 불자형사의 하루 19면
- 손바느질 전통 기사 23면
- 초의다공의 실제 26면
- 불화속 명장면 28면

지관 스님 정진석 추기경 축하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정진석 대주교 추기경 서임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2월 22일 발표했다.

지관 스님은 메시지를 통해 "세계 가톨릭에서 한국 가톨릭의 신앙이 두터움을 반영한 것이자, 세계평화를 위한 한국 가톨릭의 역할에 대한 기대와 열망을 반영한 것"이라며 축하했다.

조용수 기자

'종무행정' 정식학과 됐다

동국대 불교사회문화학과 신설, NEXT 사업 선정

동국대 이사회(이사장 현해)는 2월 21일 동국대 본관에서 제216차 이사회를 열고 불교대학 내 불교사회문화학과 신설을 결의했다.

불교사회문화학과는 실천불교학을 지향하는 학문으로 크게 ▲불교사 회복지 ▲불교문화콘텐츠 ▲종무행정 등을 교육내용으로 구성된다. 또 종학연구소 신설을 포함한 연구교수제 도입도 결의했다. 소요되는 비용 절반은 학교에서 나머지 절반은 법인에서 담당하기로 했다.

이사회에서는 이 외에도 불교대학 우수교원 초빙을 위한 불교대학 교원초빙연구위원회를 신설하고 위

원회 인원을 5명으로 하되 구체적인 운영이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게 위임키로 했다.

한편 동국대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이하 대교협)가 62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5년 대학종합평가 결과 '우수' 대학으로 선정됐다.

또 동국대 컴퓨터공학과와 정보통신학과가 정보통신부가 정보기술(IT)분야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NEXT(Nurturing EXcellent engineers in information Technology) 사업에 선정돼 앞으로 3년간 총 24억7천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종성 스님 읽던 책 한곳에 ...

本社, 9일 '종성문고' 개원 ... 1만5천여권

서울 대중사의 전법제자인 입적선종 조실 종성(1930~2004) 스님의 유지를 받든 '종성문고' (사진)가 문을 연다. 본사는 3월 9일 오후 2시 본사 법당 및 종성문고에서 종성 스님의 법제자인 입적선종조실 종성 스님과 신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종성문고 개원식'을 갖는다.

'종성문고'는 지난 2004년 12월 21일 입적한 종성 스님이 열반 3개월을 앞두고 불자들의 교리공부와 스님·불교학자들의 불학 연구를 위해 기증한 장서 가운데 1만 5천여 권으로 조성됐다. '종성문고'에는 한글 도서 1만 2천여권(본사 소장도서 포함) 이외에 일본어 2천 600여 권, 중국어 1천200여권, 영어 600여



권 등 다양한 언어의 불교학, 선행, 동양학, 문학 서적 등이 소장돼 있다. 특히 한·중·일·몽고·남침 대장경과 <선종전서> <선장> 등 선행 관련 자료는 대학 도서관 이상의 귀중한 자료들을 갖추고 있어 불교학자들의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본사는 불자들을 위해 종성문고를 무료 개방하고, 도서대출 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삼국유사 특별전-일연 탄생 800주년 기념전' 시민 발걸이 이어져

서울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2월 23일 개막한 '삼국유사 특별전-일연 탄생 800주년 기념' 전시회는 어린이 관람객으로 북적인다.

삼국시대 역사를 기록한 책을 보는 것도 아이들에게는 신기한 체험. 전시장 한 편에 마련된 벽면을 가득 채운 대

형 그림 퍼즐도 아이들의 손길로 완성된다. <삼국유사>가 생긴 유래에서부터 사진과 동영상으로 보는 <삼국유사>에 이르기까지 불거리와 이야기가 가득하다. 사진은 <삼국유사>를 추려 펼쳐낸 인각사본 <삼국유사>를 보고 있는 어린이 관람객들.

사진=고영배 기자

'맞춤형' 불교정보·생활의 지혜·감동깊은 이야기
부다뉴스 이메일 서비스 시작
buddhanews.com 2월 8일부터 매주 수요일

용문사 윤장대 운전으로 모든 액을 소멸하자!

용문사 전경 용문사 윤장대(보물 제684호) 용문사 교지(보물 제729호) 용문사 천불전 목각좌상 및 목각탱(보물 제989호) 용문사 만동불사 영산회괘불탱(보물 제1445호)

삼사순례와 방생법회는 윤장대가 있는 용문사에서!

윤장대를 돌려 업장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자

소백산 용문사는 신라시대에 창건된 천년고찰로서 한국불교 중흥과 호국에 앞장서온 대표적인 사찰입니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용문사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회전식 장경각인 윤장대 및 대장전, 목각탱, 목각삼존불, 세조의 교지, 괘불탱, 팔상탱 등 약 315점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특히 호국을 기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윤장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배우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던 이 땅의 수많은 중생들에게 복덕과 지혜의 길을 열어 주시는 자비롭고 영험하신 부처님 말씀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심각한 경제난과 사회 불안으로 점점 살기가 힘들어지는 분, 건강을 기원하시는 분, 그리고 집안에 수험생이 있는 분, 새로 이사하는 분들 모두 윤장대를 돌리시어 업장을 소멸하시고 사업성취, 병자재치, 학업성취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용문사에서는 5분거리에서 방생할 수 있는 전용 저수지가 있으며, 삼사순례를 할 수 있는 대승사, 김홍사, 부석사, 청량사, 봉정사, 명봉사 등 전통있는 사찰들이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습니다.

방생과 삼사순례로 한량없는 공덕 쌓으시고, 윤장대를 돌리시어 각자 지은 업장을 소멸하고 바라는 ما 모든소원을 성취하시길 다시한번 기원합니다.

윤문사 소시는 길

버스: 동서울터미널 출발(06:10~6:30, 30분 간격) 3시간 소요 → 예천 하차 → 택시(용문사)20분
승용차(서울): ① 중부고속도로 → 영동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IC ② 영동고속도로 → 여주IC → 중부내륙고속도로(충주김천방향) → 점촌·함창IC
승용차(부산): 경부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IC
승용차(대구): 중앙고속도로 → 안동 → 예천IC

삼사순례도

대승사 10분소요 김홍사 30분소요 용문사 50분소요 부석사 30분소요 청량사 40분소요 명봉사 30분소요 봉정사 40분소요

• 용문사에서 5분거리에서 방생할 수 있는 방생전용 저수지 있음
• 방생차량 대행차량 주차 가능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소백산 **용문사** 경북 예천군 용문면 내지리 391 (우)757-800 / 전화 : (054)655-1011, 011-336-4665 / 전송 : (054)655-8405 / www.yongmoonsa.com